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등게스와리(인도)**
기간은 짧았지만 긴 여운을 남긴 한국의 청소년들 | 김재령
- 09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태풍 '센둥' 피해지역, JTS 긴급구호 진행 | 송현자
- 15 **쭈리읍쭈어,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5 | 정훈재

국내소식

- 18 **함께 나누는 사랑**
한 살림 서울,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 5,200여만원 JTS에 후원 | 편집부
JTS에서 꿈을 살다 | 최선희
- 25 **JTS와 함께하는 사람**
다양한 경험들을 몸소 실천해 봄으로써
비로소 진정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 편집부

나눔회원소식

- 31 **활동터 소식**
국내·인도
- 34 **나눔회원 알림판**
2011년도 기금사용 결과보고·새나눔회원·특별후원금·나눔저금통

인도에 처음 오는 청소년들이라서 새벽부터 가야역에 나가서 그들을 마중하였다.
복잡한 기차 역에서 두눈이 부스스한 우리 청소년들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지만 나를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기간은 짧았지만 긴 여운을 남긴 한국의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 수자타 아카데미에 오다

한국에서 정토회 청소년 단기 출가
팀 40여명이 인도에 자원봉사를 하
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곱게 자란 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는 좋지만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기에 낯설은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과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되었다. 풀가타에서 밤기차를 탄 정영수 선생님과 청소년들은 인도 JTS 수자타 아카데미가 있는 가야역에 아침에 떨어졌다.

인도에 처음 오는 청소년들이라서 새벽부터 가야역에 나가서 그들을 마중하였다. 복잡한 기차 역에서 두눈이 부스스한 우리 청소년들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지만 나를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그럴 만도하다. 낯선 인도 기차역에서 인도인처럼 생긴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 약간 이상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색한 시간도 잠깐 정영수 선생님이 나를 소개하고 나서부터 청소년들은 인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귀찮을 정도로 물어본다. 청소년 특유의 밝고 가벼움이 전해진다.

가야에서 아침을 먹고 트럭 2대에 청소년들을 나눠 태우고 수자타 아카데미로 오는데 트럭 엔진과 경적 소리보다 더 큰 청소년들

의 재잘거림이 햇살보다 더 밝게 가야의 거리를 달린다. 인도의 농촌 풍경이 얼마나 신기할까?

우리 청소년들의 재잘거림에 인도인들도 환하게 손을 흔들어주니 청소년들은 신이 절로 났다. 드디어 우리 청소년들은 기아와 질병, 문맹 퇴치를 하는 인도 JTS 수자타 아카데미에 곱게 핀 유채꽃의 다소곳한 인사를 받으며 도착했다.

불편함 가운데 생기는 사람사이의 정

수자타 아카데미가 있는 동게스와리는 한국의 70년대 농촌 풍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린 시절 자라던 강원도 태백 사람들의 정이 이곳에서도 느껴지고, 친근하게 보아오던 외갓집 풍경을 이곳에서는 매일 보니 나는 굉장히 이곳이 편안하고 친근하고 좋다.

하지만 휴대폰과 인터넷, 게임과 도시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곳 동게스와리는 매우 불편하고 보수적인 동네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전기가 들어오지 않



청소년들이 인도 건축부 노동자들과 한 일들은 그 자체로 마을 사람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주는 것이었고, 유치원 학생들이 영어와 힌디, 숫자를 잘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이곳 등게스와리 유치원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되었다.



고, 물도 발전기를 돌려야 하니 청소년들은 전기와 물을 마음껏 쓸 수도 없고 숙소도 한국에 있는 집에 비하면 형편없는 시설이다. 이런 저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오니 다 신경이 쓰였다.

나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설이나 추석에 큰 집에 가는 길이 참 불편했다. 발 디딜 틈 없는 버스와 기차를 타고, 사람들 틈에 부대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 잃어버리고 동생들을 사람들 틈에서 보호하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던 기억. 좁은 방에서 많은 친척들과 쪽잠을 잤지만 늘 설과 추석이 기다려졌던 것은 그 불편한 속에 사람 사는 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구호활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나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불편함 가운데 생기는 사람사이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약할 것 같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청소년들

한국의 청소년들이 내부 정비를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마을에서 요청하였지만 인도 JTS에서 여건이 되지 않

아서 진행하지 못한 일거리를 이번에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일감으로 주었다. 불가촉천민 마을의 핸드펌프 배수로 공사 및 유치원 담장과 유치원 빗물 배수로 공사였다.

청소년들에게 일감으로 주긴 하였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앞섰다. 이번 일거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청소년들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멈추지 않았다. 너무 무리한 일거리를 청소년들에게 준 것은 아닌지 반성도 되었다.

악취가 나는 하수가 흐르는 땅을 파서 배수로를 만들어야 하고 어른들도 힘들다는 시멘트를 비벼야하는 막노동이었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나의 생각이 기우였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거뜬하게 이런 일들을 잘 하였다.

인도 건축부 노동자들 대부분은 학력이 낮아서 영어도 잘 못해서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에도 많이 불편하고 마을에서 자기들이 먹을 점심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인도식으로 만들어 먹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생 처음 하는 건축 노동일을 우리 청소년들은

기간 안에 무사히 잘 마쳤다.

인도에서 줄 것은 없고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애쓰는 모습이 기특해서 과자를 한 번 간식으로 주었는데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났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과자였는데 인도다 보니 너무 좋아했다. 온실 속에서 자라서 약할 것만 같던 청소년들이지만 막상 환경이 바뀌니 그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고 주어진 과제에 책임감 있게 임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희망이 보였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협동과 노동의 기쁨을 맛보다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한 일들은 마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실행하지 못한 일거리들이었다. 이번에 청소년들이 와서 불가촉천민 마을에 배수로를 만들어주어서 마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핸드펌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우기가 되면 만성적으로 빗물이 유치원을 덮쳐서 학생과 주민을 불편하게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불편이 없어졌다.

청소년들이 인도 건축부 노동자들과 한 일들은 그 자체로 마을 사람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주는 것이었고, 유치원 학생들이 영어와 힌디, 숫자를 잘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이곳 등게스와리 유치원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되었다. 나는 한국의 청소

년들이 이곳 등게스와리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고 남을 위해서 한 여러 가지 활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런 구호활동과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랐다. 마을에 봉사활동 하러 나가기 전에 항상 청소년들과 짧은 만남을 가졌는데 나의 간절함을 담아서 “육체적 노동이 힘든 것은 아니다. 남을 의식해서 무리할 때 힘든 것이다. 남보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진 체력으로 꾸준히 하면 노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했다. 청소년들이 등게스와리 마을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나는 청소년들에게 협동과 노동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정성과 헌신으로 서로 정을 나누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인도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아서인지 그들이 별로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 문명의 탓도 있을 것이다. 서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도시의 삶이 어찌면 청소년들에게 사람사이의 애틋한 정과 헌신하는 모습을 알아갔는지 모른다. 풍요와 도시문명의 대가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청소년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다.

청소년들은 구호활동과 노동을 하면서 인도 건축부 노동자들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친해졌다. 그것은 건축부 노동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말도 잘 안 통하고 기간도 짧았지만 친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헤어지는 날 우리 노동자와 청소년들이 서로 우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 속에도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이번 청소년들의 구호활동과 노동은 마을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청소년들에게도 한국에서 잘 맛볼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청소년들과 헤어질 때 포옹을 하였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사람사이의 정이었다. 이번에 등게스와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 🌸

글 김재령 | ANUP, 인도 JTS



태풍 '센동' 피해지역, JTS 긴급구호 진행

작년 12월 16일 금요일 밤부터 17일 토요일 새벽에 발생한 태풍 피해는 가가얀 데 오로(이후 가가얀)와 일리간 시내에 사상 최대의 재난 상황을 초래하였다. 부키드논 산간지역에 폭우가 내려 그 빗물이 가가얀과 일리간 시내로 한꺼번에 흘러 들면서 급류가 되어 강변 지역, 섬 지역을 쓸어갔다.

그래서 JTS에서는 집이 전부 쓸려나갔거나 살림살이를 모두 소실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리도구/식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그 동안 내가 들어왔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왔던 '태풍 피해가 없는 민다나오' 라는 문구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티브이도 없고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곳에 머무는 우리는 12월 18일 일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가가얀 시내에 태풍피해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가얀 시내에 사는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보니 집이 쓸려나간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모여 있고 가가얀 시내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어떻게든 물을 구해서 공급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인근 리보나시 소방소에 들렀다. 시장을 만나 소방차를 이용해야겠다고 얘기할 작정이었다. 다행히도 소방차가 있었다.

담당자에게 상황을 얘기하니 리보나 시장의 허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요일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집에 찾아갔다. 고맙게도 리보나 시장님은 소방차가 물을 싣고 가가얀에 물을 공급하도록 바로 지시를 내려 주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소방차로 12,000리터의 물

을 공급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 220리터짜리 드럼통 15개를 구입하여 물을 채워서 트럭에 싣고 가가얀 시내로 날랐다. 분배할 때의 무질서와 혼란이 염려되기도 하였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줄을 세우고 서로서로 질서를 일깨워 큰 혼란없이 물을 나누어줄 수 있었다. 물이 필요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단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우리는 기뻐다. JTS는 태풍 피해 후 한 주 동안 소방차와 트럭을 이용해 가가얀 시내 5개 지역에 생명수 4만5백리터 물을 전달했다.

피해 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답사에 들어갔다. 마까산딕, 발룰랑, 까르멘 등 강변지역이 피해가 컸다. 마까산딕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2010년 JTS 센터로 이사하기 전에 사무실로 썼던 집도 피해를 입었다. 집주인 말에 따르면 2층까지 물이 찼고 그 골목에서만 4명이 사망했다고 하였다. 소름이 돋았다. 이재민 대피소에 찾아갔다. 농구장이나 학교 강당에 차려져 있는 대피소는 이재민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다행히 먹을 것과 물은 이재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었다.



세비어 대학 구호센터 담당자인 트렐 보르하(필리핀 JTS 자원봉사자)씨에게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트렐 씨는 정부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음식, 물 등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재민들이 대부분 살림살이가 쓸려나가서 조리도구/식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JTS에서는 집이 전부 쓸려나갔거나 살림살이를 모두 소실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리도구/식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빨래대야, 들통, 바가지, 물통, 후라이팬, 숟, 주걱, 국자, 국그릇(대), 컵(6개), 접시(6개), 숟가락(6개), 포크(6개)이 지원품목으로 확정되었다. 이걸 완전히 신희 살림살이 도구다.

피해 지역과 대피소를 답사하여 우선적으로 분배할 지역을 선정하였다. 가가얀 강 가운데 있던 반통 섬에 살던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어퍼 발룰랑에 1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DSWD(사회복지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재민들에게 번호표를 나누어 주었다. 피해 주민 가운데서 집이 완전히 쓸

려나간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224가구가 그 대상이었다.

12월 26일 아침, 마닐라에서 필리핀 JTS 이원주 대표님을 비롯하여 JTS 자원봉사자 3명, 리보나 실리폰의 청소년 10명이 함께 참여해 구호품 분배를 시작했다. 구입 후 세비어 대학에 보관해 두었던 물품을 트럭에 싣고, 대피소에 도착, 질서정연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정리를 했다.

바랑가이(한국의 동개념) 직원은 번호대로 사람들 줄을 세우고, DSWD 직원은 번호표를 받아 카드에 기록하고, 마닐라와 실리폰에서 동참한 자원봉사자들은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한아름 살림도구를



그 어느 해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보람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였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살림살이와 용기를 주었으니 말이다.



받고 대피소로 향하는 피해주민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이었다. 따가운 햇볕 아래서 분배해 주느라 덥고 힘들었지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도 행복해졌다.

쌓여 있던 물품은 한시간 반 정도 만에 주민들에게 다 분배가 되었다. 부분 피해를 입은 가구 역시 살림살이가 쓸려나가는 마찬가지로 물품을 나누어주었다.

가가얀에서 물품 지원과 식수지원 외에 JTS에서는 방역 작업도 실시했다. 태풍 발생 후 3일이 지나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는데 방역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JTS에서는 센터에 있는 방역기를 들고 가서 마카산딕과 발롤랑 지역에서 물이 고여있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작업을 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고마워했다.

1차 지원 후 가가얀 시내의 이재민들에게는 충분히 물품이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일리간 지역에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12월 29일 일리간 교육청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피해 지역을 돌아보았다.

피해 상황이 가가얀 시내와 비슷하였다. 일리간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만돌록 지역의 집들이 이번 홍수로 다 쓸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무슬림 지역이라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지역이 일리간 시내와 떨어져 있는데다 무슬림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물품지원이 적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방문할 수 있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JTS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무슬림 인사를 찾아보았다. 다행히도 JTS를 안내해 줄 무슬림 지도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1월 3일 라나오 텔 노르테 주의원의 안내를 받아 바랑가이 만돌록(Mandulog)을 찾아가 조사했다. 9명이 사망, 24명이 실종되었으며 245가구의 집이 완전히 파손되고 300가구가 상이 가재 도구를 잃어 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강변 옆에 있는 만돌록 학교(8개 교실, 385 등록생)는 콘크리트 벽과 기둥이 쓸려가고 물에 젖은 분필통이 부서진 기둥에 걸려져 있었다. 지붕이 남아 있는 건물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도 부족했다. JTS는 이 곳에 2차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월 5일 전직 바랑가이 캡틴이었던 봉봉 아줌마, 교육청관계자, 바랑가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주민에게 번호표를 나누어 주었다. 1월 7일에는 일리간 시의 자원봉사조직에서 동참해 도움을 주었고 바랑가이 캡틴과 공무원, 라나오텔 노르테 주의원 등의 협조로 560가구에 물품 분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보온물병과 매트, 이불이 더 추가되어 완전한 살림도구를 지원할 수 있었다. 물품을 들고 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음짓는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태풍 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전달하느라 필리핀 JTS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와 연말연시를 더운 가가얀 시내에서 땀 흘리며 바쁘게 보냈다. 그렇지만 그 어느 해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보람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였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살림살이와 용기를 주었으니 말이다. 필리핀 JTS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필리핀 민다나오 태풍피해 지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멀리 마닐라에서 이원주 대표님을 비롯해 이규초, 황종일, 김상민, 이다진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JTS 센터가 위치한 실리폰에서는 미오와 랄란, 난핑을 비롯해 고등학생 8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랄란과 난핑은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그날 벌어 그날 사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물품을 지원하는데 자원봉사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리간 교육청의 브라이언, 무카드의 마카람본씨, 자원봉사단체 One for Iligan 회원들이 만돌록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의 짧은 소감을 함께 실어봅니다.

미오 (실리폰, 민다나오)

물을 신고 콘솔라시온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물을 서로 먼저 받아가려고 아우성이었다. 수

도관이 파손되어 며칠 동안 마시고, 먹을걸 끓이고 씻고 할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1시간 반 동안 물통에 물을 채우고, 두 시간 거리인 실리폰에서 가까운 시내까지 운전해 왔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다. 생명 같은 물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랄란 (실리폰, 민다나오)

피해 지역에 가서 부서진 집들을 보았을 때 매우 슬펐다. 내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텐데 생각했다. 조리도구와 식기를 나누어줄 때는 햇볕이 너무 강해 힘들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다.

난핑 (실리폰, 민다나오)

재난 지역을 보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부서진 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여웠다. 조리도구, 식기를 나누어줄 때 매우 기뻐다. 물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다진(마닐라 국제학교 학생)

1년에 한번뿐인 크리스마스를 민다나오의 태풍피해자들을 도우면서 보냈습니다. 긴급상황이라 조금은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만 듣던 상황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해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짧지만 의미있는 1박2일이었습니다. ✨

글 송현자 | 필리핀 JTS

캄보디아로부터 온 편지 5



안녕, 연잎

피약별을 피해 앓은 열대나무 그늘 아래에서 늦겨울 시린 바람을 뚫고 새 봄을 향해 영차영차 나아가고 있을 너의 모습이 떠올랐던 건, 같은 하늘 아래 늘 닿아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을 거야.

너의 손을 빌려 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 내며 내 마음으로 네 바람을 막아 줄 수 있길 기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지금 이 순간. 소중한고 감사해.

내가 만날 그저 덥다고만 해서 캄보디아가 단순히 더운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곳에도 엄연히 사계절이 존재해. 비가 오고 꽤 더운 여름, 비가 오고 더운 여름, 비가 안 오고 더운 여름, 비가 안 오고 무지막지하게 더운 여름. 어때? 굉장히 복잡하게 더운 나라가 아닐 수 없지?

온갖 종류의 더위 중에서도 비 한 방울 없이 건조하고 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요즘은 매일 같이 먼지가 눈처럼 내려. 한낮에 내린 붉은 먼지가 산천초목을 물들이고, 옷가지를 물들이고, 사무실 바닥을 물들이지.

한 번의 외출에 더러워지는 옷가지와 한나절 안에 흡투성으로 변하는 바닥을 보노라면 빨래도 청소도 부질없는 짓이요 놓아버리는 것이 자유와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일쑤야.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지켜야 할 행동으로써 정해진 원칙과 이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로써 나누어진 소임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잠자리에 들면서부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오늘밤만큼은 시간이 느릿느릿 가서 5시에 일

어나는 것이 마치 7시에 깨는 듯 가뿐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함이 부족해서일까? 매일 어김 없이 새벽 3시 같은 5시 기상이지. 그래도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 기도 방석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야.

비몽사몽간에 기도문을 외고 한바탕 절을 하고 나면 마음에서 올라온 열기로 온 몸이 뜨거워져. 응.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움직이니깐 더 더운 거야. 그래도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최소한 몸을 위한 운동을 마친 셈이고 최대한 마음을 위한 운동도 마친 셈이야. 자연스럽게 미소가 그려져.



그리곤 이어지는 청소 소임. 오늘은 먼지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와서 걸레질이 수월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이 불어오는 먼지바람에 비해 턱 없이 약하다는 것은 언제나 더 한 양으로 쌓여진 붉은 먼지를 통해 알 수 있지.

바닥을 물로 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내 손에 쥐어진 건 내 얼굴만 한 크기의 대걸레 하나뿐이야. 묵묵히 닦고 빨고 닦고 빨고 닦고 빨고 닦고 빨다보면 걸레를 빨은 만큼 그 걸레로 바닥을



닦은 만큼 바닥은 깨끗해져 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내가 한 그만큼. 깨끗해진 바닥 위로 다시 바람은 불어올 테고 곧 먼지가 쌓이겠지만 나는 또 걸레를 빨고 바닥을 닦겠지. 이것이 나의 소임이니깐.

이어지는 화장실 청소도 점심 공양 당번도 원칙에 따라 정해진 소임을 해나가는 일의 연속이야. 각각의 순간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그 마음을 좇아 생기는 또 다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관계없이 지켜가는 원칙에 따르는 행동에서 새롭게 생기는 마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배우게 돼. 더해서 어떤 행동이 나의 행복, 나의 자유를 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것 같아.

이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원칙과 소임을 넘어서 내가 좋아서 그냥 하게 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나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날, 내 마음으로 온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 때, 웬지 난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말 할 수 있

을 것 같아.

보고 싶어.

건강해. ✨

글 정훈재 | 캄보디아 JTS

한살림 서울,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5,200여만원 JTS에 후원

정리 편집부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12월은 춥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것들이 더 필요하고 그리운 계절입니다. 한살림 서울은 2010년에 이어 2011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한국JTS에서 한달 간 모은 모금액 52,027,619원을 JTS에 후원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살림 서울 박금순 이사장, 김재겸 상무이사, 이경숙 조합원 활동실장, 한혜영 홍보기획팀장과 한국 JTS 김기진 대표와 JTS 자원봉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살림 서울은 북한 어린이들이 기아와 추위에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매년 12월 북한돕기 모금을 하고 있고 모든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하고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이다. 하루 속히 북한 어린이에게 식량이 지원되었으면 한다"고 박금순 이사장님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 서울은 조합원과 생산자, 활동가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모금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한살림 서울 북동지부 7개 매장에서는 각 매장 별로 목표액을 정해놓고 일을 시작해 보자며 의욕적으로 의견을 모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떡 판매와 폐식용유로 만든 빨래비누 판매, 활동가들이 틈틈이 떠오르는 환경수세미 판매는 모금행사가 있을 때면 언제나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많은 활약을 펼쳤다고 합니다. 거기다 올해는 추운 겨울에 유용한 질 좋은 수면양말을 떼다 판매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판매를 해봤는데 조합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 많은 모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매장에서는 하루 낱을 잡아 활동가들이 온갖 솜씨를 부려 정성껏 만든 잡채, 김밥, 떡꼬치, 호떡, 밀반찬 등을 판매하는가 하면 어떤 매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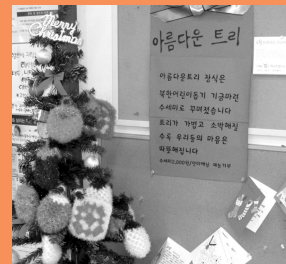
서는 일주일에 하루씩 낱을 정해 국이며 밀반찬, 간식거리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매장에서는 연말 장식용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켈트를 만들어 매달아 놓았는데 판매를 요청하는 조합원이 있어서 급하게 몇 개를 팔아 성금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해마다 사용하는 투명모금함에 조금씩 성금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폐를 넣어 주시는 분, 거스름돈을 넣어 주시는 분, 양말을 사시고 거스름 돈 5천원을 그대로 넣는 분들까지...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바라볼 때면 음식할 때 힘들었던 일, 수면양말을 준비하며 고생했던 일, 환경수세미를 뜨면서 지루했던 일이 어느새 사라지고 활동가로서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JTS 희망의 목도리를 떠서 북한어린이들에게 기부한 남부·남서지부 활동가들은 평소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또 식사시간 중에도 틈만 있으면 한올 한올 정성을 담아 완성해 마련해갔는데, 그 수가 250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대중강좌에서 참여자들이 넣어주신 기금, 6년근 황기를 기부 해주신 분, 환갑잔치 여행 자금을 흔쾌히 내놓으신 분과 같이 뜻 깊은 손길들은 끝을 모르게 이어달리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냉해로 농가 피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괴산연합회 생산자분들이 밭 벗고 나서서 12,510,000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좋아하던 술까지 딱 끊고 동참했다는 술피농장 생산자들의 뒷이야기는 나눔의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지고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고 북녘 어디선가 배를 굶아 죽는 아이들에게 전해져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동참해주시고 애써주신 한살림 서울 조합원, 활동가 분들 모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하신 모금액 52,027,619원은 굶주리는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



JTS에서 꿈을 살다.

최선희 JTS 자원봉사자

어릴 때부터 한비아 씨의 책을 읽으며 국제구호활동가의 꿈을 키웠던 나는 무역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꿈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닌 특별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이 국제구호활동가의 꿈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인도 선재수련을 다녀온 탤런트 김여진씨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 강연을 통해서 처음 JTS와 인도 사업장을 접하게 되었다. 강연을 듣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고 그 때 느꼈던 설레임과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래, 나도 국제구호활동을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자신감을 얻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2010년 1월 인도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인도 선재수련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경험한 짧은 국제구호활동은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 이후에 꼭 다시 장기 봉사를 가보리라 마음먹었다. 그 이후 정토회 문경수련원에서 100일간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2년 뒤 다시 인도로 1년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파견 전 2011년 9월부터 한국 JTS에서 매일 상근 자원활동을 하며 6개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참으로 재밌고 신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울고 웃었던 6개월의 시간, 돌아보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Chapter I

- 북한 지원 물품 선적식 -

“오늘 아침 북한 아이들도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적식 몇 주 전 “선희씨, 선적식때 신궁씨 노래에 맞춰서 마임해 줄 수 있어요?” 공연 섭외를 받았다. 평소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대학교 때도 동아리에서 마임을 해본 적이 있는 지라 흔쾌히 해보겠다고 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겠다고 말은 뱉었으니 어떻게든 해보기로 했다.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북한 식량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008년 북한 식량난 관련 영상과 책을 찾아보았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마스크를 통해서 식량난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상황은 믿기 힘들 정도였다. 나는 2008년에 무엇을 했던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많은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나는 그걸 모르고 산 것이 너무 미안했다. 그때서야 신궁씨의 “미안해, 니가 나인줄 몰랐어.” 이 노래가 내 마음속에 와닿았다. 그래서 이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었고 앞으로는 그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오랜만에 하는 마임이라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라 부담도 컸다. 그래도 진심은 통할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했다.

공연시작 전 북한 아이들에게 보내는 시 낭송을 듣는데 왈카 눈물이 났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을까. 오늘 보내는 이 지원 물품이 따뜻한 밥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임을 했다. 참가하셨던 분들이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니 보람있었고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 JTS에서 이렇게 잘 쓰일 수 있어서 감사했다.



Chapter 2

인천 연수고 NGO 연구반 수업 -일일 선생님이 되다.

9월부터 인천 연수고에서 한 달에 한번 NGO 연구반 수업을 JTS 국내활동팀에서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11월 달은 “세계가 백명의 마을이라면” 영상 보기와 퀴즈, 그리고 무역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좋아할까, 내가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면서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일일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교생 실습 나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될 줄이야.

수업을 진행하는 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니 신기했고 퀴즈상품으로 사탕을 주니 반응이 뜨거웠다. 그날의 하이라이트였던 무역 게임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팀을 나눠서 미션을 진행하며 세계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몸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1시간여 미션 수행하느라 다들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귀여웠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세계 빈곤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집중력이 부족하고 공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내가 본 친구들은 진지하고 세계 빈곤 문제에 가슴아파하는 마음 따뜻한 아이들이었다. 부족하지만 진지하게 수업에 임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앞으로 다양한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과 세계 빈곤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Chapter 3

작은 짜이집과 함께 한 대학 캠퍼스에서의 캠페인 - 인도전통차 짜이 한잔 하실래요?

더 많은 JTS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대학으로 나가 캠페인을 하기도 했다. 짜이를 판매한 모금액을 JTS에 기부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작은 짜이집을 방문하였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도 오고 바람도 매섭게 불었다.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추운 날씨에도 짜이를 마시고 모금해주는 사람들을 보니 힘이 났다.

다음에는 이화여대를 찾았다. 작은 짜이집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 후 역할을 나눠 JTS 자원봉사자는 JTS와 작은짜이집을 홍보하고 작은 짜이집 친구들은 짜이를 끓이고 열심히 판매하였다. 중간에 짜이를 다시 끓여야 할 정도로 그날 반응은 뜨거웠다. 더 신이 나서 홍보하고 우리끼리 홍보 동영상도 찍으며 즐거운 캠페인을 했다. 비는 강의시간을 내어 작은 짜이집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다. 사무실을 벗어나 이렇게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참으로 뜻깊게 느껴졌다. 대학 졸업한지 4년이 지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했다.



Chapter 4

JTS 서포터즈 대학생 청년 자원봉사단 “조인 투게더” - 일곱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다.

JTS 서포터즈 조인투게더 덕분에 이번 겨울은 눈코 뜰새없이 바쁘게 지냈다. 대학생 청년 친구들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고 국제개발에 대한 이론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기로 하였다. 원래는 20명 모집을 목적으로 홍보를 시작했는데 무려 109명이 접수를 하는 예기치 못한 상



황이 발생했다. 우리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다. 사전 설명회에 45명의 친구들이 참가했고 모두 서포터즈에 대한 참가의지가 높아 다 함께하기로 하였다.

한지민씨와 함께 하는 연말 캠페인, 매주 수요일 마다 진행되는 캠페인 기획 정기모임, 국제개발 아카데미, 한 달에 2번 인사동에서 진행한 거리 캠페인, 매주 한번 사무실 일일 봉사까지 3개월을 서포터즈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 지 고민이 많은 대학생 친구들과 봉사, 국제구호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추운 날씨지만 직접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도 함께 하면서 나는 희망을 찾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사동 쌈지길 앞에서 플래시몹을 한 것은 잊을 수 없다.

6개월 동안 JTS에서 겪은 많은 경험을 통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워진 듯하다. 예전에는 해외 자원봉사만 꿈꿨는데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았다. JTS는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오던 것들을 실현 시킬 수 있는 곳이자 마음이 따뜻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이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

1주일 뒤면 인도로 간다. 1년 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할지 기대가 된다. 6개월 동안 한국JTS에서 얻은 경험과 힘이 있으니 인도에서도 문제없을 것이라 믿는다. ✨

다양한 경험들을 몸소 실천해 봄으로써 비로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터뷰 이세형 JTS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교장
정리 편집부

*2010년 필자가 인도성지순례를 갔을 때 스텝으로 있던 JTS 자원봉사자가 어느날 수자타 아카데미 교장선생님이 되어계시다!
이세형 수자타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34세)을 편집부가 만났다.

JTS : 예전 이세형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셨나요?

평범하게 일반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는 어느 일반적인 여자들과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출판사에서 일했었고 그래서 좋은 책을 만들고 계속 그쪽 분야에서 더 전문적으로 일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정토회 깨달음의 장을 하고 100일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JTS : 소녀 같은 인상에 어울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을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조금은 특별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처음에 정토회 수련 프로그램인 100일 출가를 하게 된 건 제 개인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제 문제가 다 해결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더하게 되고 또 더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 편안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남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남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죠.



JTS : 젊으신 나이에 교장선생님이 되신다는게 쉽지 않았을텐데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의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처음에 교장선생님 자리를 법륜 스님께 제안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누가 노래시켰을 때 쑥스럽지만 기량껏 해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JTS : 현재 나이가 이상을 펼치고 뭔가 사회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해나가는 시기인데 현실에 대한 어떤 미련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제가 재작년 여름에 한국에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제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뭔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잠깐 나가서 돈을 벌어볼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 다시 명상 수련하고 극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미련같은 건 없어진 거 같아요. 지금은 나가서 살아도 좋고 여기서 살아도 좋은데 사실 처음에 100일 출가 하고 나서 얼마 안되었을 때는 결혼해서 잘 살고 직장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를 얻어 안정되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 누구를 보더라도 다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저의 삶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 비교하면서 일종의 교만심같은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JTS :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어떤 느낌이 오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했었죠~ 그냥 정토회 행자대학원 교육 과정에 있었으니까 갔었던 건데 그때 좋은 느낌을 받아서 계속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거죠. 사람들이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JTS가 인도 동게스자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늘 인도에 대한 열망이나 호기심, 동경 같은게 있잖아요?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육과정에 있었으니까 갔었던 건데 6개월 동안 있어보면서 한번 생활해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개발 쪽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JTS : 그런데 이렇게 덜컥 교장선생님이라는 중책을 맡고 나시니 부담도 크셨을것 같고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해나가셨나요?

처음에는 힘들도 있었어요. 우선 언어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 좀 힘들었구요. 2년 전에 처음 인도에 와서 사귀 친구들은 마을 개발쪽 인도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수자타아카데미 교장이라고 하니 그걸 잘 못받아들이더라구요. 인도 친구들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수자타 아카데미는 중학생들이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교 학생들이 교사가 되는 체제예요. 이렇게 대부분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이 교사이자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자타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보다 경험도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힘들었어요.

JTS : 인도에 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에는 인도가 워낙 위험하고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셔서 폐교위기까지 갈 정도로 상황이 안좋았어요. 지금은 학부모님들도 모두 인정해주시고, 얼마 전에는 교복과 체육복이 새롭게 디자인 되어 그걸 입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또 등학교때 교문에서 해맑은 웃음으로 인사하고 마을에 가면 꼭 집에 와서 먹을 거 먹고 가라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때 정말 행복하죠.^^ 불가촉 천민집단 아이들은 집이 너무 멀어서 오기가 힘든데 그래도 맨발로 담을 넘어서 오는 아이들을 보거나, 결석한 친구들 왜 학교에 안왔냐고 학교에 온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에게 안부를 물어주면 다음날 결석했던 아이들이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때는 너무 반가워요. 부모님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안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학교생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런 일상에서 소소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JTS :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들을 느끼시나요?

물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달라진 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줄을 잘 서는 규칙적인 모습, 인사를 잘 하는 예의있는 모습, 교복을 깔끔하게 입는 모습, 물건을 아껴쓰는 모습, 청소를 잘 하는 모습, 거짓말을 하지 않는 모습,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등...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인도인의 특징이라면 너무나 여유

로운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건을 주문해놔도 그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바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여유롭거든요. 제가 가야 그제서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격 급한 저로서는 참 난감할 때가 많지요.

그나마 우리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과 교사들은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수학여행 갈 때면 새벽 5시까지 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미 4시에 저를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 멀리 자르하리라는 마을에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자르하리는 학교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어야 되는 마을임) 새벽 4시면 칠흠 같은 어둠뿐인데 그 험한 길을 오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이지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의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느낍니다.

JTS : 요즘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국제기구나 NGO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개발 협력분야에서 활동을 꿈꾸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오면 안되구요. 어떤 큰 이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면 속상하잖아요. 낙후된 국가들은 환경도 열악하고 변수도 많거든요. 그러면 실망하는 수가 생겨요. 또 자기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실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사무일만 본다던지 아니면 밥하거나 빨래 이런 일만하고 있으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거 다 마음을 비우고 오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상태에서 즐겁게 소풍간다는 마음으로요!

JTS : JTS에서 돈을 받지 않고 활동하고 계신데요, 생활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세요? 무급 봉사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하 거의 돈이 바다야 났죠~그렇지만 저는 근데 진정한 봉사는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서 생활하는 돈은 다 보시 받아서 하는 거니까 1루피(인도 화폐단위)라도 아껴야 하죠. 무급봉사는 더 좋은 거 같아요. 100일출가도 사실은 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공부죠. 행복을 위해 돈을 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하면서 봉사하면 더 주인의식도 생기게 되고 마음도 커지는 거 같아요.

JTS : 나눔이란 어떤 것일까요?

특별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 또 나도 나눔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나와 세상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JTS : 세상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하루 하루 희망을 찾는 것, 상대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 상대의 단점과 어두운 점만 본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죠~가령 아이들이 학교에 자주 지각하고 결석한다고 할지라도 애네들은 천성이 이렇게 게으른가?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할 거 같아요. 안그러면 아이들을 원망하게 되고 자신의 일도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또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거 같아요..

JTS : 젊은 나이에 커다란 용기를 내시고 인도라는 대륙에서 큰 항해를 하고 계신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친구같은 입장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희 인도에도 보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 학교에서 일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교사로서 보람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갈등하게 되는데 그건 선택의 문제인거 같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들을 몸소 실천해 봄으로써 비로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나이가 많아서라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환경적인 상황들을 문제 삼는 건 다 핑계예요. 도전하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해보고 안되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나야죠. 가서 그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면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내소식

JTS : 앞으로 수자타 아카데미의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으세요?

동계스와리 주변에 1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꾸려가지만 아직도 많은 천민들은 돌을 깨거나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요.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둔 아이들은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려는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집걱정 없이 마음껏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정말 공부만 가르쳐주는 학교가 아닌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수자타아카데미 출신의 아이들은 내 가난보다 더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내 고민보다 더 힘든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수자타아카데미가 그런 학교가 되어 동계스와리의 희망, 인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늘 행사가 많고 빠듯한 학교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힘들고 지칠 때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지요. 제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저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



1.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북한돕기 모금 전달

지난 2월 17일 재일코리안청년연합 강이행, 강황범 공동대표와 간사 다나카 조미나코이씨가 한국 JTS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400여명의 회원과 정기후원 회원이 100여명 정도로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재일코리안청년연합은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단체입니다.

작년에 창립2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JTS에 후원한 것은 이미 15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기와 함께 매주 거리에 나가서 북한돕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금을 통하여 모아진 121,171원을 JTS에 전달했습니다.

정성껏 모아진 돈을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일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동네 JTS 거리모금 캠페인 안내 ①

인사동 거리모금이 시작되고, 비가 오기 때문에 모금을 중단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 복에 아이들도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는 문구에 그냥 했습니다.

봄비 맞으며, 모금해주신 분들에게 마음 속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하실 분

매월 첫주, 셋째주 일요일 2시

서울 인사동 크라운베이커리 앞 (안국역 6번출구 인사동입구)

담당자 강희석(010-6777-6425)

인도소식



1. 수자타 아카데미 18주년 개교기념식

1월 8일 수자타 아카데미 프락보디홀에서 성지 순례객 180여명과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 800여명, 상급 유치원생 280여명, 마을 리더, 외빈등을 포함하여 총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자타 아카데미 18주년 개교기념식이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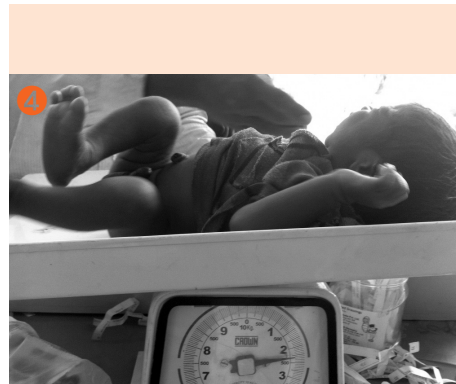
2. 유치원 리모델링 진행 중

유치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치원 리모델링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지난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채광확보를 위한 지붕 교체, 먼지를 막기 위한 창문 보강, 동물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담장 설치, 도색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계스와리 근처 15개 유치원 전체 리모델링은 올 연말에 끝날 예정이다.



3. 수자타아카데미 교복 지원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님, 뉴욕정토회 김영승님, LA 정토회 이경택, 김명례님의 후원으로 2012년 수자타 아카데미 전교생에게 새 교복이 지급되었다.



4. 지바카병원 저체중아 조사

지바카병원에서는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저체중아 조사가 있었다. 지바카병원 저체중아 조사는 2010년 시작에 시작하여, 매년 0~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WTO 기준에 근거하여 영양상태 조사를 하고 있다. 2012년 조사 결과 심각저체중아가 76명으로 확정 되었다. 76명의 심각저체중아들은 영양상태가 호전 될 때까지 매 달 지바카병원에서 영양식을 공급 받게 된다. 2월 말에 있을 1차 저체중아 지원에서는 76명의 심각저체중아와 더불어 한 단계 낮은 155명의 저체중아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다.



5. 마을일꾼 교육 - "우리 마을 희망 찾기"

지난 12월 17일 인도 JTS 마을일꾼 교육이 6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끝났다. 이번 교육에서는 "우리 마을 희망 찾기."라는 모토로 마을의 장점을 찾고, 이것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마을 일꾼들은 마을이 가난하고 문제점만 산적한 줄 알았는데 관점을 바꾸니 살 만한 마을임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6. 겨울 한파 대비 담요 분배

지난 연말 인도 북부에 매서운 겨울 한파가 닥쳐서 학교가 임시 휴교를 가지고 동사자가 발생하는 등 혹한이 닥쳤다. 이에 인도JTS에서는 지난 12월 23일과 26일에 1,275장의 담요를 1가구당 1장씩 마을 주민에게 분배하였다. 마을주민들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물건을 받아서인지 매우 흡족해하였다.

(사)한국JTS 기금사용결과 보고

(2011. 01.01~ 12.31)

■ 수입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율 | 비고 |
|-------------|----------------------|-------------|---------------|
| 후원금 | 3,477,743,011 | 75.6% | 정기, 특별후원금 |
| 모금활동 수입 | 228,512,473 | 5% | 캠페인 및 저금통포함 |
| 물품후원 | 4,128,000 | 0.1% | 유아용내의 |
| 사업비보조금 | 544,635,520 | 11.8% | 국제협력단(KOICA)외 |
| 이자수입 | 344,932,675 | 7.5% | |
| 수입합계 | 4,599,951,679 | 100% | |

■ 지출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율 | 비고 |
|--------------|----------------------|--------------|-------------------------------|
| 북한 사업비 | 1,646,739,614 | 54.4% | 취약계층식량, 생필품, 의료지원, 전국고아원지원 외 |
| 인도사업비 | 203,886,544 | 6.7% | 동계스와리16개마을교육지원, 보건 의료지원, 마을개발 |
| 필리핀사업비 | 45,294,223 | 1.5% | 민다나오 교육지원, 원주민 농업기술센터 건축 |
| 캄보디아 사업비 | 197,567,833 | 6.5% | 교육지원사업 |
| 해외기타 사업비 | 387,148,810 | 12.8% | 인도네시아 : 주택복구 스리랑카 : 농촌개발 |
| 해외긴급구호 사업비 | 238,409,145 | 7.9% | 아이티: 학교건축 일본: 쓰나미긴급구호 |
| 국내사업비 | 94,191,559 | 3.2% | 두복시설유지비, 노인잔치, 애광원행사지원 |
| 홍보사업비 | 71,029,604 | 2.3% | 소식지제작외 |
| 사업비 계 | 2,884,267,332 | 95.3% | |
| 관리운영비 | 142,539,738 | 4.7% | 지급임차료 및 발송비 외 |
| 지출합계 | 3,026,807,070 | 100% | |
| 차기이월금 | 1,573,144,609 | | |
| 총 계 | 4,599,951,679 | | |

*감가상각비를 지출에서 제외함

새나눔회원 _ 개인·단체

정기후원자 명단은 지면활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2011년 12월1일~2012년 1월31일

문의전화 02-587-8995

JTS 후원회원 여러분께

매마른 가지에 파릇한 새눈이 움트는 희망찬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에도 여러 가지 도움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3월부터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후원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1.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후원회원 등록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기존 홈페이지회원 여러분도 새로 후원회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후원회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과 회원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CMS계좌변경, 후원중단 등)

3. 연말 소득공제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5. 자세한 내용은 JTS 홈페이지(www.jts.or.kr)의 알립터의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2012년 3월 회원님 일동

인도결핵퇴치

| | | | |
|-----|----------|-----|----------|
| 김진우 | P0062241 | 송은호 | P0002339 |
| 김철순 | P0061795 | 양명옥 | P0062399 |
| 김형준 | P0062240 | 양승엽 | P0062254 |
| 남현선 | P0062451 | 오혜경 | P0059208 |
| 민지환 | P0057598 | 유대원 | P0047669 |
| 박경선 | P0061542 | 윤현주 | P0061697 |
| 박성래 | P0062466 | 이상민 | P0060010 |
| 박숙경 | P0062984 | 이선우 | P0053171 |
| 박정현 | P0045680 | 이승경 | P0035053 |
| 배동희 | P0062187 | 이명숙 | P0061721 |
| 배동진 | P0049835 | 이정형 | P0061932 |
| 변경식 | P0062346 | 이현숙 | P0062383 |
| 서홍기 | P0062376 | 인병학 | P0062268 |
| 손진아 | P0062789 | 임진재 | P0062149 |

| | | | | | |
|-----|----------|-----|----------|-----|----------|
| 장준호 | P0024708 | 김소연 | P0062181 | 박순환 | P0004262 |
| 전유환 | P0062535 | 김소연 | P0061969 | 박영자 | P0051962 |
| 정만권 | P0050120 | 김숙희 | P0060503 | 박용부 | P0062952 |
| 정선영 | P0062796 | 김영출 | P0058822 | 박윤아 | P0061483 |
| 정철남 | P0061384 | 김영화 | P0061545 | 박은수 | P0040878 |
| 조성미 | P0044843 | 김예빈 | P0062043 | 박은우 | P0012197 |
| 조원진 | P0061845 | 김옥자 | P0033753 | 박정우 | P0062185 |
| 진수이 | P0062118 | 김용경 | P0061568 | 박종덕 | P0048697 |
| 차수빈 | P0058665 | 김원근 | P0061696 | 박창선 | P0062803 |
| 추민진 | P0061718 | 김윤후 | P0061708 | 박효용 | P0063263 |
| 한경희 | P0045780 | 김은아 | P0062856 | 배동진 | P0049835 |
| 한주리 | P0061693 | 김은주 | P0044342 | 배병철 | P0062201 |
| 황은희 | P0061929 | 김인아 | P0061800 | 배준희 | P0061552 |
| | | 김재연 | P0041787 | 백간구 | P0062913 |

인도 및 기타후원

| | | | | | |
|----------------|----------|---------|----------|---------|----------|
| 김선스님 | P0063264 | 김정옥 | P0002847 | 반지훈 | P0061431 |
| McENTEE FAMILY | | 김주하 | P0061569 | 사지혜 | P0062179 |
| | P0061799 | 김준형 | P0047047 | 서동일 | P0063267 |
| 강정숙 | P0007989 | 김지아 | P0062646 | 서동희 | P0062552 |
| 강정희 | P0054036 | 김지민 | P0061425 | 서문선 | P0011251 |
| 강혜선 | P0061931 | 김진우 | P0062241 | 서순례 | P0063250 |
| 고 승준 | P0061540 | 김진환 | P0061710 | 서영은 | P0051712 |
| 고병국 | P0061261 | 김철순 | P0061795 | 서예경 | P0002516 |
| 고세진 | P0061945 | 김춘선 | P0062060 | 서진솔 | P0058828 |
| 고영숙 | P0056334 | 김춘호 | P0058907 | 서홍기 | P0062376 |
| 곽유경 | P0062930 | 김한성 | P0063262 | 설기수 | P0062284 |
| 구경현 | P0061797 | 김형준 | P0062240 | 성분도어린이집 | |
| 권다원 | P0062157 | 김호수 | P0061493 | | S0044577 |
| 권정심 | P0062190 | 김희영 | P0062161 | 손득례 | P0041230 |
| 권정심 | P0062382 | 나희원 | P0059352 | 손명순 | P0062244 |
| 김경태 | P0062412 | 남노이 | P0010997 | 손아영 | P0062757 |
| 김경희 | P0062431 | 도수(금선사) | | 손재심 | P0061912 |
| 김도갑 | P0062532 | | P0042809 | 손지연 | P0061681 |
| 김동우 | P0061165 | 류근수 | P0026520 | 손진아 | P0062789 |
| 김명선 | P0033646 | 류현경 | P0062960 | 송인성 | P0062456 |
| 김명신 | P0061979 | 맹관호 | P0063129 | 시미정 | P0062917 |
| 김명희 | P0061543 | 문현성 | P0062172 | 신동성 | P0062537 |
| 김미리 | P0061803 | 박경선 | P0061542 | 신동순 | P0055147 |
| 김미수 | P0062897 | 박기화 | P0062318 | 신조은 | P0061713 |
| 김만규 | P0062365 | 박다정 | P0051455 | 심연주 | P0024442 |
| 김상기 | P0062178 | 박 신 | P0062881 | 안복순 | P0058001 |
| 김생길 | P0002798 | 박석하 | P0061411 | 안용휘 | P0044279 |
| 김성재 | P0062785 | 박성래 | P0062466 | 양명옥 | P0062399 |
| 김성희 | P0062416 | 박성만 | P0062246 | 양선영 | P0055336 |
| 김소라 | P0059814 | 박수홍 | P0062394 | 양영철 | P0061821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지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긴급구호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